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기와 마스코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가 6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양(兩) 대회 /전남도 제공

## 광주시의회 상임위 본예산 2000억 삭감

"이례적"…광주시는 자치구 도로사업·노동인권회관 '부동의'

광주시의회가 7조원대에 이르는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비심사적인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삭감했다.

반면 광주시는 민원예산 격인 자치구 도로사업 증액분 대부분을 부동의해 집행부와 의회 간 신경전으로 비춰지면서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갈등이 깊어질지 주목된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총 4개 상임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광주시 29개 실·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968억원을 삭감했다. 건수로는 174건에 달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3068억 원 중 823억 원이 깎였다. "준공 시기 연기와 시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은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16억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덕남정수장 동북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비 18억22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됐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아인계엄 공동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은 선형 연구용역인 주민설명회 과 기반조사, 경제성·파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모두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장갑차와 헬기 등 진압 장비를 이전·전시하기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도기 기자

## 치솟는 물가에 광주 공공요금 인상 '들썩'

내년 택시요금·공영주차장 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이르면 내년 2월...“고금리·고물가 고려 인상 불가피”

내년도 광주 지역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 속 안정적 서민 삶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범위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2019년 1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기본요금 3300원(주간 기준·심야는 20% 할증)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물가인상분 등

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도 대폭 인상된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급지 기준, 시간 당 요금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부과 기준도 변경한다. 현재는 기본 30분 요금에 15분마다 요금을 추가한다. 변경 뒤에는 기본 요금 최초 10분 이후 10분마다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2004년 이후 18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동결해 온 만큼 이제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인상을 결정했다.

2018년 이후 동결된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매년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내년 요금 인상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억제정책에 둘러 있던 각종 공공요금이 하나둘씩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구 동림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49)씨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치솟는 물가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공공요금 인상의 당위성은 알겠지만, 인상 시기만이라도 늦춰지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배모(50)씨는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오니 이제는 금리

와 물가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민생 최우선과 함께 위기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	2면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실패	3면
한국 가계부채 심각	4면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수시, 고흥군

**호남매일**

## 韓 축구 16강 브라질 벽 못 넘었지만 '희망'

축구대표팀 역대 두번째 원정 16강 진출 성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대 2번째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카타르에 입성해 첫 훈련을 하며 월드컵 탐험길에 나섰다. 조별리그 H조에 속한 한국은 우루과이와 1차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 가나와의 2차전에서 조규성의 멀티골에도 아쉽게 2-3으로 패했다.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김영권과 황희찬의 골로 2-1 승리해 1승 1무 1패 총 승점 4점을 얻어 포르투갈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16강 상대 국가는 FIFA 랭킹 1위의 브라질이었다. 하지만 축구 강국의 벽은 높았다. /권형안 기자

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내주며 1-4로 완패했다.

그러나 대표팀은 브라질의 강세에도 굴하지 않고 후반과 의지를 불태웠다. 후반 2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솟을 시도했지만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실점 후에도 한국은 라인을 끌어올리며 만회골을 노렸다. 주도권을 찾기 위해 브라질 진영 깊숙이까지 전진했다. 황희찬은 강력한 중거리 슈트로 브라질을 위협했다.

후반 31분 백승호가 강력한 중거리 슈트로 만회했지만 이후 추가골은 나오지 못했고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여정은 마무리됐다.

대표팀은 이르면 7일 오후 귀국해 해산한다.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